

# 구원의 자격은 구세주가 될 때 갖추어진다

## 구세주 되는 방법 1 - 구세주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구세주 있다고 마음 먹기

23년간의 역사가 흘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세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주에서 처음으로 나온 철학이며 또한 마지막이 될 완성의 학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만드는 학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되는 철학, 구세주 되는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천기에 속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역사 육천년 이래 이와 같은 철학을 논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완성자만이 이러한 철학을 처음으로 논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하늘 나라의 지혜요, 하늘 나라의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에게 맡기는 철학이 어떠한 것이냐 하면 알고 나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에 남자를 붙이면 무엇이 되지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처럼 구세주 안에 여러분들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 구세주가 있어야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는 완성자입니다. 완성자가 되는 방법은 구세주가 되는 완성자 안에 들어가면 바로 완성자가 되게 되며 또 내 안에 완성자가 계시면 바로 내가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 구세주 되는 방법 2 - 온전히 맡기기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처음에 역곡에 나와서 모든 식구들에게 말씀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끝나는 것이며 온 인류가 하나가 되면 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구세주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구세주가 있으면 구세주가 되는 논리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러한 학문을 논한 적이 없습니다. 완성자인 구세주가 처음으로 가장 치원이 높은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문을 알면 하나님이 안될 수가 없고 구세주가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 안에 있고 구세주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가 돼요, 둘이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세주가 되는 방법은 구세주가 승리자를 거치고 '또 이겼다'를 거쳐서 완성자가 된 다음,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고 마침내 그다음에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것을 늘 고심하면서 밀실에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바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온전히 맡기다가 또 안 맡긴 것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맡긴다로 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온전히 맡겼다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가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를 뭉땅 짓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깨끗

## 『구세주되는 방법은 일종의 천기』



구세주 조희성님

한 심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므로 내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밀실 안에서 이렇게 투쟁을 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바로 나라는 의식이므로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되는 나라는 의식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구세주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다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세주가 못된다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지옥 가요, 천당 가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 구세주가 되는 방법 3 -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기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 안에 거하려면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세주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구세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세주 완성자가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도로 사모하고 이제 그대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구세주가 되는 방법 4 - 나의 모든 것은 구세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과 사고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사용하면 죄가 안 되지만 이제 그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선 이게 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쓰면 죄가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면 자연히 주님 안에 살게 되며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구세주가 되는 방법 5 - 모든 사람을 나와 동일하게 여김으로써 온 인류에게 평화주기

이 사람이 영모님 때는 순종을 해야 구원이란 말씀을 했고 그다음엔 바로 이 사람이 나와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야 구원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와 같은 고로 온 인류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는 하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하고, 평화 회담을 하다가

또 전쟁을 하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몸같이 여긴다면 전쟁할 수 있을까요? 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구세주 안에서 살게 되고 구세주가 또 여러분들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구세주가 나오, 내가 곧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23년간 구세주 혼자서 구세주 노릇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구세주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구세주를 고도로 사모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자신이 구세주 안에서 살게 되고 또 구세주 자신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게 되니까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의 구세주가 되면 구세주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들이 구세주 하나만 없애면 되는 줄 알고 구세주를 옥중에 집어넣었지만, 구세주가 많으면 하나 잡아넣으면 또 있고 또 하나 잡아넣으면 또 있고 구세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가 앞발 뒷발을 들까 안들까? 앞발 뒷발 모두 들게 되는 것입니다. (2003\_08\_11 말씀)\*

# 성경에서 사라진 단지파, 그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바로 성경(BIBLE)일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표방하고 있다. 바로 요한복음(5장39절)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질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성인 삼위일체, 전지전능 및 사랑(大慈大悲)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그 내용들을 따져 보면 이런 하나님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아마도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상당수 내용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1) 성경에서 사라진 장자 축복 행사

장자축복이라는 행사가 왕가(王家)에서 세자(世子)를 세우 다음 대의 왕위를 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삼대(三代) 가주(家主)인 야곱까지만 장자권이 이양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장래 예언 장면이 등장하는 창세기 49장에서는 어떤 아들에게도 장자권이 임하였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을까?

즉 어느 아들이 다음의 4대 선민(選民)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며, 또 죽을 인생을 영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세주도 성경에는 거명되어 있다. 구세주의 출현

조건이 담겨 있는 성경을 아래에 인용하기로 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救贖者)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이사야59:20).

방금 인용된 구절에서 '구속자'는 구세주에 대한 다른 호칭이다. 구세주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장자권 이양은 구세주가 출현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성경에서 장자축복이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다. 왜일까?

## 2) 약속에 의해 본처의 장자, 적장자(嫡長子)가 된 '단'

야곱의 결혼생활 이후 본처인 라헬의 언니이지만 첩이 되는 레아는 순차적으로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까지 본처 라헬은 수태조차 못한 상태가 되어 남편에게 "나의 여종 발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창30:3)"하고 시녀 발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발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으며,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었고 '단'은 '심판자, 재판관'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처럼 '단'은 남편과의 약속에 의해 본처 라헬의 장자, 즉 적장자(嫡長子)가 된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권을 이양 받은 아들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성경 로마서(9:7~8)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는 내용에서 야곱의 12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장자권이 임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야곱의 아들 중 약속에 의해 태어난 아들은 다섯 번째 아들인 '단' 뿐이다. '단'은 비록 본처의 여종 발하의 소생이지만 남편 야곱과 본처(라헬)와의 약속에 의해 본처의 장자가 된 유일한 약속의 아들이다. 야곱의 몸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므로 야곱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됨을 간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이 약속의 자녀이자 본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그런데 '단'은 그의 형제들에게는 본처의 여종이 낳은 아들로 각인될 수밖에 없기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심계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세주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출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자 축복을 받은 아들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함이 당연한 것이다. 심판권과 구원권은 오직 구세주만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니, 약속

의 아들인 '단'에게만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다(창49:16~18)는 것은 구세주가 '단'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것임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장자권이 '단'에게 임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 3) 장자(長子)의 정확한 신분적 위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선민(選民)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초대 선민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존재인 지에 대해 기록된 성경이 있어 그것을 다음에 인용한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主)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에드로전서3:6).

분명히 아브라함의 처(妻)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主)라 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마가복음(12:29)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는 내용에서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지 높은 공중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바냐(3:17)에는 사람 속에 거하신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장자축복을 받은 아들에게 옮겨져 그의 몸에 거하시고 다음 대의 장자축복을 받은 아들에게 다시 옮겨 거하시게 됨을 의미하는 성경(마22:32)도 존재한다.

앞에 인용된 이사야서(59:20)의 내용에서 구속자(구세주)는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이라 천명되었으니 구속자가 출현할 때까지는 계속 장자권이 승계되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장래 예언 말씀에서 '장자축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아들에게도 사용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인간으로서의 장자축복에 관련된 사유와 목적을 절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 4) 구세주를 상징하는 독사(毒蛇)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에 대한 장래 일을 예언한 창세기(49장)의 내용 중 다섯 번째 아들인 '단'에 대한 축복 내용에서 '뱀과 독사'라는 이미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탄이요 마귀로 오인하여 단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출현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게 해 놓았으므로 오히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적(敵)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독사는 사람을 죽이지만 죽을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하게 됨을 상징하는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한다.